

거리노숙인의 유대 형성에 대한 문화기술지: 삭막한 세계의 동맹자 만들기

Ethno-graphic Research on the Bonding of Street Homeless : Making Alliance of Rough World

저자	김진미 ; 서정화
저널명	韓國社會福祉學
발행기관	한국사회복지학회
NDSL URL	http://www.ndsl.kr/ndsl/search/detail/article/articleSearchResultDetail.do?cn=JAKO200603553210545
IP/ID	59.86.205.37
이용시간	2017/11/14 16:30:12

저작권 안내

-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거리노숙인의 유대 형성에 대한 문화기술지 :

삭막한 세계의 동맹자 만들기

김진미

(가톨릭대학교)

서정화

(가톨릭대학교)

[요 약]

이 연구는 거리노숙인의 사회적 관계 중 노숙동료 관계를 중심으로 이들의 유대가 어떻게 형성되는지와 그 의미를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질적 연구방법 중 문화기술지 연구전통을 따라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2005년 8월부터 약 6개월 동안 서울지역 주요 노숙지역과 일일이용시설의 노숙실태를 현장 조사하고, 노숙인 8명을 심층 인터뷰하여 자료를 수집했다. 스프래들리(Spradley, 1979)의 자료 분석절차에 따라 노숙인의 유대형성과 관련된 주요 영역을 확인하였는데, 이 영역들은 새롭게 노숙세계라는 낯선 시·공간에 떨어진 노숙인이 생존과 정체성의 위기를 노숙 동료와의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해 모면해 가는 과정을 보여 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거리노숙이라는 문화 속에서 노숙인들끼리의 유대는 (1)새로운 고향의 의미, (2)인정받기 위한 대체집단의 의미, (3)세계 내 구별을 통한 자기 정체감 유지의 의미라는 주제를 갖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르면 노숙인들의 자기 정체성은 이중적이고, 따라서 동료관계에 부여하는 의미와 해석 또한 이중성을 갖는다. 이는 노숙이라는 극단적 빈곤 상태의 삭막한 세계에서 생존과 자기 존재감을 위한 동맹자원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노숙인들이 생존 자원의 결핍은 물론 진정한 관계의 결핍을 갖고 있음을 밝히면서, 거리노숙 탈피를 위한 노숙인 지원 대책과 서비스가 보다 장기적 계획을 갖고, 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제언하고 있다.

주제어 : 거리 노숙, 거리노숙인, 사회적 관계, 유대, 문화기술지

1. 문제제기

거리에서의 노숙생활은 흔히 가장 열악한 삶으로 표현된다. 추운 날이건 비 오는 날이건 딱딱한 바닥에서 잠을 청해야 한다는 사실, 한 끼 식사를 해결하기 위해 길게 늘어선 줄에 끼어 서 있어야 한다는 사실 등은 노숙 세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건디기 힘든 삶으로 상상된다(한겨레21, 2005/12/06; 오마이뉴스, 2005/11/27). 그러므로 노숙인의 삶이란, 더욱이 거리노숙이란 끊임없이 사회복지적 개입을 통해 종식되어야 할 어떤 것으로 생각되곤 한다. 거리에서의 삶이 가진 물리적 피폐함을 생각하면, 당연히 그렇다.

물론 거리노숙을 끝내게 하고 싶다는 시민적 열망이 모두 한 가지 색조를 띠고 있는 것은 아니다. 노숙 문제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관심은 ‘노숙’이라는 극단적 빈곤상태에 대한 안타까움임과 동시에, 주류사회의 생활문화 양식을 견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거부감의 감정을 포함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실제 공공장소에서의 음주, 청결하지 못한 행색, 구걸 등은 마땅히 경범죄로 단죄되어야 할 것으로 얘기된다(매일경제, 2005/09/13). 이때 공공장소가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가 하는 논의에서 노숙인의 입장과 관점은 아예 끼어들 여지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노숙인이 어디에서 자야 하는가, 어디에 있어야만 하는가를 규정하는 문제는 노숙인과 주류사회 질서간의 갈등, 노숙인과 그 질서를 만들어나는 시민사회간의 권력 차이를 내포한다(Wright, 1997: 43).

이러한 논란에 한가지로 답하기 힘들다는 딜레마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양 측면 중 어떤 한 측면을 강조하는 입장에 있더라도, 최근 거리노숙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는 것은 공히 우려할 만한 일이다. 그래서 노숙과 관련한 세간의 논의들, 특히 언론매체를 중심으로 한 논의들을 보면, 거리노숙에 대한 미흡한 대책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강원일보, 2005/11/30; 한겨레신문, 2005/11/09; 세계일보, 2005/10/20). 전문상담터를 만들어야 한다든가, 확실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는가 하는, 예전부터 얘기되어 왔으나 근본적 대책이 나온 적은 없는 과제들이 제기된다. 물론 거리노숙에 대처하기 위한 그러한 지원책들은 무엇보다 시급하게 현실화되어야 한다.

그런데 잠깐 더 생각해 보면 우리의 고개를 가우뚱하게 하고 의구심을 갖게 하는 것들,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 거리 생활의 탈피라는 측면으로 접근하는 것이라면 기존의 사회복지 서비스는 왜 그들의 삶에 충분한 해결책이 되지 못했을까. 왜 쉼터가 아니고 굳이 거리인가. 거리를 떠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은 무엇인가.

이와 관련해 지금까지 노숙에 이르고 노숙세계에 고착되는 과정에 대한 연구들을 검토하면, 대체로 두 갈래의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 같다. 가장 일반적인 연구 경향은 노숙 문제를 알코올중독이나 정신질환 등 개인적 취약성을 가진 사람들이 사회나 서비스에서 배제된 결과로 보는 것이다(신원우, 2003). 노숙생활에서 무기력을 학습한 사람들이 노숙을 탈피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도 넓게는 이에 포함된다(남기철, 2000). 이러한 접근은 거리노숙 생활이라는 일종의 하위문화에서 드러나는 대표적인 현상을 포착할 수 있게 해 준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노숙인 개개인이 갖고 내적이고 심리

적 문제에 천착하여 사회복지적 서비스를 모색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한다. 그러나 노숙 문화 그 자체에 대한 좀더 풍부한 이해와 접근이 비어 있음으로써, 즉 노숙 문화를 내부자 시각으로 보지 못함으로써, 노숙 생활에서 드러나는 현상을 그저 주류 사회와의 단절성 혹은 폐쇄성으로 결론짓는 데 그치고 말았다. 노숙에 대한 이해가 결과적으로 노숙인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의 양과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이라고 할 때,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한 연구들이 갖는 딜레마는 의도하지 않더라도 거리노숙 인구군을 일탈적 하위문화를 형성하는 부정적 집단으로 보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다른 경향으로는 노숙 생활을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이해하고 해석해 보고자 하는 연구물들이 있다. 이에 따르면, 노숙화 과정에서 이미 모든 자원을 고갈시킨 노숙인들이 다시 진입해 들어가기에 주류 사회의 경쟁적 메커니즘은 워낙 강고하고, 이것이 노숙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된다. 말하자면 노숙인을 주류 노동시장에서 생존에 필요한 수입을 획득하기 힘든 저기능, 저기술의 만성실업자로 이해해 보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노숙인들의 거리노숙 생활은 기본적인 생존에 필요한 것을 해결하는 데 일상의 모든 에너지를 투여해야 하는 삶으로 그려질 수 있다(안준희, 2000; 최우림, 2000; Snow and Anderson, 1993; Snow and Mulcahy, 2001). 이들은 무엇보다 노숙 문제에 대한 사회경제적 맥락을 깊이 있게 이해하도록 해 주고, 보다 구조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근거를 마련해 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접근이라 할 수 있다. 이 연구들에 따르면, 거리노숙인의 삶이란 지불 가능한 주거를 마련할 길이 없고, 일자리를 찾을 수 없을 때 선택할 수밖에 없는 대안적 생존방식이다.

하지만 사회경제적으로 거리 노숙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또 본질적이라 하더라도 이것으로는 충분치 못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된다. 그것은 경험적으로는 현장의 실무자들에게서 확인된다. 노숙인 지원활동을 하는 실무자들의 실천적 고민은 많은 노숙인들이 거리노숙을 탈피했다가도 곧 거리에 돌아오곤 하는데, “다른 고생하는 노숙동료들이 생각나서..., 돈이 좀 생겼으니 술 한잔 사주려고...” 등등의 이유를 대면서 노숙 문화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때 거리로 돌아오는 노숙인들에게 걸땀되어 있는 것은 단지 방값을 지불할 돈만은 아니다. 노숙세계에서 경험한 그 어떤 것이 노숙인에게 위안이 되었다면, 그것은 노숙생활을 공유했던 다른 노숙인들과의 관계에서 생긴 것이라고 유추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노숙 동료와 맺는 관계를 이해하게 하는 설명으로는 외국의 노숙인 문제 연구자인 그리스비·바우만·그레고리·로버트 그레이(Grigsby, Bauman, Gregorich, and Roberts-Gray, 1990)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들은 노숙 세계에 고착되는 구조를 주류사회와의 단절과 새로운 형태의 연계형성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우리의 거리노숙 문제에 관련된 기존 연구들의 한계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주류 사회와의 단절이라는 측면에 방점이 놓여 있고, 새로운 형태의 연계형성이 어떻게 가능하고 이것이 가질 수 있는 기능과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보다 풍부한 내적 이해는 부족해 보인다. 사실 인간의 삶에서 어디에서 자고, 먹고, 누구와 관계를 맺을까를 빼 놓을 수 없다는 점을 상기해 보더라도, 노숙 생활에서 사회적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노숙 세계의 문화적 양상과 특성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분야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거리노숙을 지속시키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자 할 때 이들이 노숙세계에서 어떤 인간관계를 형성하는가라는 측면에서 이해해 보는 것 또한 기존연구의 성과를 풍부히 할 수 있는 방법

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글은 거리노숙 세계에서 유대의 형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과정과 의미를 살펴보는 데 관심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연구하고자 하는 주요 문제는 이렇게 압축될 수 있다. “거리노숙 생활에서 유대의 형성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그것이 노숙 생활에서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이러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는 질적 연구 방법을, 그 중에서 문화기술지의 접근전략을 채택하고자 한다. 이러한 접근전략을 사용하는 것은 무엇보다 그 동안 거리노숙인들의 삶에 대해서는 피상적인 모습들 외에 크게 알려진 바가 없고, 접근상의 현실적 어려움 때문에 연구물이 많지 않았다는 데 이유가 있다. 말하자면 거리노숙이라는 삶의 형태에 대해 우리는 대체로 문외한이고, 따라서 탐색적인 방법으로 질적인 연구 방법이 유효하다(유태균 역, 2001: 31-37). 더구나 우리의 관심은 거리 노숙 생활에서 유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해하는 데 있으므로 양적인 연구 방법으로는 이를 충족시키기 힘들다.

문화기술지 연구방법은 연구자가 연구하려는 현장, 즉 어떤 사회나 집단의 문화에 속한 사람들의 내부자적 관점을 이방인의 위치와 관점에서 배워가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외부자적으로 담아냄으로써 한 사회의 문화적 패턴의 다양성과 이를 발생시키는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는 입장에 있다(Hammersley and Atkinson, 1995: 8-9). 그런 의미에서 ‘거리 노숙’이라는 주류 사회와는 다른 삶의 경향을 보이는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문화 내부에 들어가 봄으로써 구체적인 생생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본다. 이와 관련해 라이트(Wright, 1997: 40-41)는 사회적 가상(imaginaries)은 그 사회의 사회 경제적 관계를 통하여 작용하며, 특정한 문화적 범위를 따라 표현되며, 인구대상들을 통하여 굴절된다고 말한다. 또한 소외와 억압에 대한 이해를 생산영역에서 일반 생활세계로 옮겨와 일상 생활의 조건을 분석해 냄으로써, 시장경제의 불평등과 노숙인의 박탈이라는 기호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고 역설한다. 이에 따르면 노숙인의 인간관계들 역시 그들의 일상을 들여다봄으로써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이라고 본다. 다시 말해 거리 노숙이라는 독특한 삶의 세계를 그들이 어떻게 경험하는지 그들 삶의 문화적 주제를 찾아보는 연구방법을 통해서 거리노숙인에게 결핍되어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인지를 조명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2. 문헌고찰

1) 노숙인과 사회적 관계

사회적 관계¹⁾란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어, 일련의 개인적 관계의 집합체로 이해되는가 하면 대인관계의 교환 범위뿐 아니라 도움의 구조와 양태를 의미하는 사회적 지지 관계로 파악되기도 한다(Whittaker and Garbarino, 1984; 김애란, 2000: 8 재인용). 일반적으로 사회적 관계는 단순한 사람들

1) 이 연구의 주 관심인 노숙동료 관계(relationship)는 반드시 지지(support)의 측면만을 띠지는 않으므로, 여기서 사회적 관계는 주로 사회 관계망(social network)의 개념으로 이해한다.

의 집합이 아니라 구성원들간의 연결이 개인의 행동에 미치는 하나의 관계체계이며 현실생활에서의 관심과 유대의 결과로서 친족, 이웃, 자조집단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된다(김용학, 1986; 박지현, 2001: 9 재인용).

노숙인의 사회적 관계는 대체로 ‘취약함’을 특징으로 한다는 것이 일반론이다. 무엇보다 노숙 발생의 역사적 과정을 이해하는 사회과학의 주류적 시각부터가 그것을 노숙인의 사회적 이탈과 고립의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이론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에서는 1960-70년대에 걸쳐 수립되어 왔고, 이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스킨드로우²⁾의 사람들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 스킨드로우 지역에서 생활하는 홈리스들은 고용이 안정적이지 않으며 가족과의 관계가 매우 약하다는 결과들이 도출되었던 것이다(Snow and Anderson, 1993). 사실 집을 잃은 상태의 노숙인에게 집이란 단지 공간적 의미-house-는 아니다. 노숙인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 토시(Tosi, 1999)는 노숙 문제란 주거지의 부재, 즉 주택에서의 배제, 주택의 부족 등의 문제이면서 또한 사회적 주변화, 극단적인 형태로 는 탈사회화, 절연, 사회적 연대의 파괴 등을 의미한다고 이해한다. 이러한 생각은 집에 대한 두 가지 의미에서 발생하는데, 집은 공간의 부족인 동시에 사회적 관계나 연대의 부재를 나타내기도 한다. 노숙인이 된다는 것은 관계와 역할, 유대의 상실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노숙 문제가 ‘소속감’과 관련된 사회적 과정과 연관된다는 것에 대해 바르(Bahr, 1973)는 노숙이 연계단절의 과정-전통적인 제도나 사회적 역할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상황에서 발생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Grigsby, et.al., 1990 재인용).

그러나 노숙인의 연계 단절에 주목한 전통적인 연구들에서는 노숙인의 사회성에 관해 이들이 어떤 대안적 형태를 갖게 되는지에 크게 주목하지는 않았다. 노숙인들 내부의 관계나 상호작용의 정도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것은 1980년대에 들어서 노숙인 내부의 사회적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가 진행되면서부터이다. 이 연구들을 통해 그때까지 예상하고 기대하던 것과는 달리 노숙인 사이에 강한 유대가 있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Baumann and Grigsby, 1988; Grigsby, et.al. 1990; Snow and Anderson, 1993).

여기에는 대체로 두 가지 흐름의 설명이 있다. 하나는 노숙인의 새로운 유대가 매우 결속력 있게 형성되어 노숙 만성화로 귀결된다는 설명이고, 다른 하나는 이러한 유대가 매우 피상적이고 기능적 수준이며 이는 노숙생활의 특징으로부터 유래된다는 입장이다.

바우만과 그리스비(1988)의 연구는 노숙인 사이에서의 제휴를 노숙 만성화의 과정으로 이해하는 대표적 경향을 보여준다. 이후 그리스비와 동료들(1990)은 보호시설 노숙인과 거리노숙인을 포함한 166명에 대한 일대일 면접방식의 조사를 실시하여 노숙생활이 사회적 연계 제휴에서의 문제를 가져온다는 점을 지적하고, 사회적 관계망의 측면에서 노숙의 만성화를 이해해 볼 수 있는 모형을 제시하였다. 이들의 모형은 한마디로 “사회적 연계단절과 노숙세계로의 고착”이라는 개념으로 압축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노숙인은 만성적 노숙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고립’되고, 고립된 노숙인은 그들의 스트

2) 스킨드로우(skid-row)는 1920년대 이후 미국의 홈리스 거주지를 말한다. 미국 서부개척기에 철도 건설, 광산, 삼림 개발, 과수원, 목축 등의 분야에서 유동 노동력을 대표하던 호보(hobo)들이 산업구조의 변화로 사라지면서, 이들을 위한 싼 음식과 숙소 밀집지는 나이 들고 장애가 있어서 경제적으로 보다 의존적인 홈리스들이 모이는 곳이 된다(Allan, 1997).

레스에 대처하는 방식으로 다른 노숙인과 제휴한다. 비슷한 문제를 지닌 다른 사람들과의 제휴는 걱정을 감소시키고, 개인적 결정을 돕는다. 그런 점에서 기존의 관계를 잃었을 때 노숙인에게 열린 두 번째 경로는, 노숙의 곤란함에 직면한 비슷한 사람들과의 사회적 관계를 통해 이웃과 가족과의 연대 상실에 대처할 것을 찾는 것이다.

이 연구를 요약하면, 노숙인들은 노숙을 하게 되면서 지속적으로 사회적 지지를 상실하여 나타나는 사회적 연계단절 형태로, 또 주된 관계망이 노숙인들로 이루어지면서 나타나는 파행적인 관계 재제휴 형태로 만성화되어 간다. 사회적 연계단절이 사회적 지지와 관계망의 지속적인 상실로 정상적 사회생활을 어렵게 한다면, 노숙인들간의 제휴는 사회관습과 동떨어진 ‘노숙문화’를 만드는 관계망에 의존하게 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어렵게 한다. 즉 다른 노숙인과의 제휴는 정신적 지지와 소속감으로 거리 생활의 곤란함을 해결하도록 하지만, 점차 노숙생활에 고착되도록 한다(Grigsby, et.al., 1990).

노숙인들간의 활발한 교류를 보다 생생하게 설명하면서도 그것이 갖는 내부자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에 천착한 것으로는 스노우와 앤더슨(1993)의 연구가 있다. 문화기술지적 접근방법으로 168명의 거리노숙인을 만난 이 연구는 노숙인을 크게 최근 노숙형(recently dislocated), 양다리형(straddlers), 국외자형(outsiders)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그룹이 어떻게 동료노숙인과 관계를 형성하는지 밝히고 있다. 노숙인들이 거리에서 맺는 동료 관계 내에서 정서적, 물질적 도움, 정보의 교환이 제공되는지 여부를 파악하고자 한 이 연구는, 물론 이러한 것이 있었지만 그것은 치료적이라기보다 필요대응적인 것이었다고 결론짓는다. 노숙인들도 그들끼리 다양한 형태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정상적인 주거를 갖고 있는 시민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여전히 약하고 덜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거리 유대는 술 마시도록 하는 압력을 증가시키고, 사회적 거부, 동료집단 활동 참가 방해, 물질적 지원을 철회할 가능성, 자존감과 도덕성의 혼란 등의 사회적 압력이 되기도 한다.

그런데 이들이 강조하는 것은 노숙인 사이의 사회적 유대가 느슨하고 매우 허약한 특성을 갖는 것은 유대가 형성되고 유지되는 사회환경 자체의 불안정 때문이라는 점이다. 생존을 위해 주어진 자원이 늘 부족한 상황에서 친밀한 사교를 영위하는 것은 힘들 수밖에 없고, 이는 사회성 부족이라기보다 다분히 기능적인 것이라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2) 거리 노숙의 문화적 의미

해리스(Harris, 1968)는 문화란 특정 사람들의 집단과 연관된 행동의 유형이고 관습이며, 혹은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라고 정의한다(Spradley, 1979: 5 재인용). 이 정의에 따르면, 거리 노숙이라는 특정한 사람들의 생활방식 역시 하나의 문화이고, 거리 노숙이라는 생활방식에 대한 이해는 그것의 문화적 의미를 이해하는 것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거리 노숙을 하나의 삶의 양태로서 이해하고 문화적 의미에 천착하려면, 우리가 무엇을 노숙이라고 보는지부터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용어로 볼 때 ‘노숙(露宿)’은 전형적으로 거주적 특성을 강조한 개념이다.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한 ‘부랑인및노숙인복지시설설치·운영규칙’ 제2조제1호에서는 ‘노숙인(露宿人)이라 함은 일정한 주거 없이 상당기간 거리 등에서 생활하는 18세 이상의 자(노숙인쉼터 입

소자 포함)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노숙의 거주 특성을 포착하고 있는 설명이다. 노숙이란 무엇보다 영구주거의 결여로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거리에서 노숙생활을 한다고 할 때 이들의 생활양식을 이해하는 제일 첫 번째 관심은 어디에서 자고 먹고 생활할 것인가, 즉 거주형태에 관련된 것일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거리노숙에 대한 이해란, 즉 공공공간을 사유화하여 생활하는 방식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요하는 문제이다.

현대 사회는 가정의 사적 영역과 바깥 세계의 공적 영역간의 심각한 대조를 특징으로 한다(Burgers, 1988; Doorn, 2004 재인용). 그런데 사람들이 공적 공간을 대하는 문화적 의미는 다 다르다. 스프래들리(1970)는 '물리적 공간과 그것 내에서의 대상이 사회적으로 구성된다는 맥락에서 보면, 같은 도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다른 문화적 세계 내에서 그들 스스로를 발견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고 한다(Doorn, 2004 재인용). 이런 발견은 확실히 노숙인에게도 적용된다. 그들의 공적 공간에 대한 지각은 같은 공간에 대한 전통적인 사용자들과 다르다. 노숙인들은 더 이상 사적 공간을 소유하지 못하고, 공적 공간에서 흔히 사적 영역에서 유지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살아남기 위해 그들 나름대로 공적 공간을 판단하고, 공적 공간에 대한 개념을 그들의 욕구에 맞도록 조정한다.

이렇게 공적 공간에 던져진 노숙인의 삶에 대해서 둔(2004)은 공적 공간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노숙인에게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노숙인의 생활리듬과 공간 인식이 주류사회와 얼마나 달라지게 되는지를 설명한다. 이에 따르면, 공적 공간에서의 머무름이란 대부분의 노숙인에게 아주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지각된다. 벽과 방이 없는 환경은 노숙인의 행동에 반영되어, 항상 위험에 대한 걱정을 한다. 또한 노숙인은 소음이 있는 도심과 사람이 가득찬 쉼터라는 대안 사이에서 공중의 시선에 노출되어야 한다. 이런 시선은 그들을 쉴 수 없도록 하고 휴식과 반성을 위한 방 한 칸도 없이 떠돌게 한다. 선잠을 깨고 경계를 늦출 수 없는 생활이 피로와 수면 부족을 가져온다.

다른 한편, 공적 공간에 놓여진 노숙인의 삶을 보다 정치, 문화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연구들도 있다. 김홍수영(2005:117-118)은 노숙인을 통해 도시공간을 이해하면, 도시는 시민과 노숙인에게 상이한 시선을 던지는 두 개의 사회적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때 공공시설은 시민들에게는 우월한 정체성을 형성하는 휴식과 소비의 공간이지만, 노숙인들에게는 온몸으로 비난의 시선을 받는 거부의 장소이다. 따라서 공공시설에 계속 출몰하는 노숙인들은 공간을 불법적으로 점유하는 일탈자나 범죄자로 낙인찍히기도 한다. 노숙인의 신체는 거리의 보행자들에 의해, 혹은 국가권력에 의해 끊임없이 비난과 감시의 시선에 놓인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두고 라이트(1997: 41)는 현대의 사회 물리적 공간에서 어떤 육체가 받아들여지고 거절되고 하는 문제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력을 가졌는가에 있다고 말한다. 그런 관점에서 라이트(1997)는 공적 공간을 야영지 형태로 바꿔버리는 노숙인들의 생활문화 방식은 그러한 권력에 대한 저항이고 모반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둔(2004)은 시간에 대한 개념들 역시 확실히 문화 속에서 각인되는 것이라고 하면서, 거리에서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노숙인들은 주류 사회제도와와의 연계가 더욱 약해짐으로써 시간에 대한 지각도 더 멀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한다. 물리적으로는 달력을 보지 않게 되며, 점차 시각 단위에 대한 지각조차 바래서 시민들에게는 이들에 해당되는 시간을 하루처럼 살기도 한다. 말하자면 노숙인

들은 ‘스스로의 시간 안에서’ 살기 시작한다. 일하는 날과 주말 간의 구분이 없을 뿐 아니라, 낮과 밤의 리듬이 아주 무너지기 시작한다. 반대로 매일매일 주간보호와 야간 호텔을 전전하는 생활 리듬이 그들 삶에 새로운 구조를 제공한다. 대부분은 얼마나 오래 거리에서 살았는지를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말을 한다. 말하자면 노숙생활은 시간의 경계가 점차 축소되어 과거나 미래보나 ‘여기와 지금’에 초점을 두는 삶이다. 몇 차례의 부정적 경험을 통해 미래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의 허망함을 절감하게 되면 계획보다는 오늘의 즉각적 욕구해결에 초점을 둘 수밖에 없다. 단기간에 초점을 뒀으로써 그들은 실망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한다. 그런 면에서 오늘에 초점을 둔 시간 지각은 노숙인에게 매우 기능적이다.

시간과 공간 개념의 이러한 적응의 패러독스는 한편으로는 노숙인들이 거리에서 생활을 더 잘 운영하고 버틸 수 있도록 만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노숙 상황의 지속에 기여한다. 이것은 그들을 구제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낸다. 주류 사회와 그들의 거리는 그들이 시간과 공간을 다루는 방식 안에서 더 확대된다(Doom, 2004).

3. 연구방법

1) 연구현장

스프래들리(Spradley, 1979)는 문화를 서술하는 일은 현지인의 관점에서 다른 삶의 방법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다른 방법으로 행동하는 것을 배우는 사람으로서 현지조사 작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의 연구에서 거리노숙인 내부의 생활과 역동을 배우기 위한 현장은 서울지역의 주요 거리노숙 지역이었다.

현재 전국적으로는 약 1,000여명의 거리 숙박 노숙인이 있고, 일일 응급시설 격인 상담보호센터에서 숙박하는 800여명을 포함하면 일일 거리노숙인은 약 1,800여명 정도로 추산된다³⁾. 이 중 2006년 2월말 현재 서울지역 현황을 중심으로 보면, 약 400여 명 정도가 서울역, 영등포역, 을지로 지하도를 중심으로 한 주요 노숙지에서 거리 숙박을 하고 있고, 일일 300여명이 일일이용시설인 상담보호센터(drop-in-center)에서 숙박한다.

라이트·루빈·드바인(Wright, Rubin, and Devine, 1998)은 노숙인은 집이 없다가보다 주거가 불안정하다는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주택시장의 핵심부로부터 떨어져 주변부에서 불안정하게 오락가락하는 한계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이다. 우리의 경우도 노숙 주변에는 많은 한계계층의 불안정 거주자들이 포진하고 있다. 이들 역시 어느 날은 거리나 쉼터에서 숙박하여 노숙인으로 집계되었다가 어느 날은 집계되지 않는 어떤 주거, 이를 테면 쪽방이나 사우나, 만화방, 여인숙, 고시원 등지에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리노숙인이라 통칭하지만 거리에서 생활하는 태도나 생활을 유지

3) 거리노숙인 현황에 대해서는 노숙인다시서기지원센터 홈페이지 www.homelesskr.org와 전국실직노숙자대책종교시민단체협의회 홈페이지 www.homele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는 방법은 그야말로 다양각색이다. 예를 들면, 거리에는 건설일용직이나 가스공사 잡부, 식당일, 운전, 행상, 고물수집, 엑스트라 연기자 등 꾸준히 혹은 간간이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앵벌이 같은 비정상적 근로로 용돈벌이를 하는 사람들도 있으며, 근로능력도 의지도 없이 오직 무료급식을 이용해 삶을 유지하는 사람들도 있다(노숙인다시서기지원센터, 2001). 2001년 7월 거리노숙인 157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38.5%가 일용직, 4.1%가 장사를 한다고 했으며, 전체적으로는 일을 하지 않는다고 답한 경우(51.4%)가 일하는 경우보다 조금 많았다(노숙인다시서기지원센터, 2002).

거리노숙인을 위한 서비스는 크게 무료급식, 임시숙박소 제공, 무료 현장진료, 그리고 현장 상담소와 거리아웃리치 상담활동 등이 있다. 이런 제반 서비스는 대체로 거리에서 최소한의 생존을 유지하도록 돕는 데 집중되어 있다. 최소한 굶지는 않도록, 얼어죽지는 않도록, 혹은 거리에서 대책없이 죽어가지는 않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와 같은 서비스는 노숙인들이 많은 서울역이나 영등포역, 을지로 부근 지하도 등에 몰려 있다. 실은 노숙인들이 많으니 그곳에 서비스가 집중되고, 또 서비스가 집중되니 노숙인이 모이는 꼴이라 할 수 있다.

노숙인들의 일과는 대체로 이러한 서비스, 그리고 숙박환경과 맞물려 있다. 노숙인들은 보통 숙박 장소로 이용하는 지하도나 전철역이 첫차를 운행할 즈음 일어나서 짐을 챙기고 아침을 먹기 위해 무료급식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이동한다. 낮시간의 이동 대부분은 급식처나 생필품 주는 곳, 목욕이나 세탁을 하고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곳, 구제비 주는 종교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거리노숙인을 만날 수 있는 곳도 낮에는 주로 무료 현장진료소나 현장상담소, 이용시설 등이며 일부는 역 대합실 등에서 삼삼오오 모여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반면 밤에는 대합실이나 지하도, 상담보호센터 등지에서 쉽게 노숙인을 볼 수 있다. 상담보호센터는 저녁식사가 끝난 직후부터 이용할 수 있는데, 서울지역의 경우 영등포 부근에 두 곳, 서울역 부근에 두 곳, 용산역 부근에 한 곳이 있다. 상담보호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노숙인들은 자리가 차서 퇴차를 맞지 않기 위해 일찌감치 이들 시설을 찾는다. 다섯 곳 중 여성들이 이용하는 곳을 빼고 나머지 기관들은 숙박 후 새벽에 퇴실하도록 되어 있다. 상담보호센터의 최근 풍경으로 특별한 것이라면 2005년 3월 이후 ‘노숙인 자활근로’라는 일당직 일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일로 수급권자 생계비를 상회하지 않는 정도의 임금을 받지만, 인기가 좋다. 이 임금을 받는 노숙인들 중 상당수는 쪽방을 월세로 얻어 생활하고 있다.

2) 자료수집과 분석

이 연구를 위해 연구자들은 우선 거리노숙인들이 일일 응급숙박소로 이용하고 있는 상담보호센터의 중간관리자급 실무자 두 명을 통해 노숙현황에 대한 개괄적 이해를 높였다. 또한 상담보호센터에서 일일 숙박을 하며 컴퓨터를 이용하지 않고 있는 거리노숙인들의 생활방식을 관찰하고, 주요 노숙 지역에서 일일 아웃리치 상담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그야말로 거리 숙박을 하는 노숙인들의 일상을 관찰했다. 이러한 관찰은 거리노숙인들의 사회적 관계에서 중요한 맥락이 될 수 있는 생존 환경을 파악하고, 일상을 보내는 방법에 대한 관찰을 통해 자연스러운 문화 그 자체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것이었다.

자료수집을 위한 주요 방법은 거리노숙인에 대한 심층 인터뷰였으며, 이러한 전 과정은 Spradley(1979)의 문화기술적 면접방법에 따라 진행되었다. 인터뷰에 참여하여 정보를 제공한 거리노숙인은 모두 8명이었다.⁴⁾ 이들은 모두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공유하고 있는 상담보호센터 실무자를 통해 소개받았다. 정보제공자 선정의 기준은 길든 짧은 거리노숙 경험이 있고, 특히 인터뷰 당시 거리에서 숙박하거나 혹은 거리 숙박과 일일이용시설, 쪽방 등의 불안정 주거시설을 병행하여 이용하고 있는 사람이었다. 이들 중 최초에 인터뷰한 한 명은 예비조사 형식으로 개괄적 질문수준에서 인터뷰하고, 이를 기초로 이후 인터뷰 내용의 초점을 형성하였다. 나머지 7명은 2005년 9월부터 2006년 1월 사이에 만나 인터뷰하였는데, 이중 6명은 한 차례씩 만났고, 한 명은 두 번 만나 구조질문과 대조질문을 하였다. 정보제공자를 한 차례만 만나는 것으로는 심층적이고 포괄적 정보 확인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거리노숙이라는 부유(浮游)성 때문에 2차 약속을 잡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정보제공자를 통한 자료수집 기간을 약 6개월에 걸쳐 길게 잡았는데, 앞선 정보제공자에게서 확인한 내용은 다음 정보제공자에게서 구조질문, 대조질문의 형태로 확인되고 심화되었으며, 이 내용은 다시 다음 정보제공자에게서 확대되는 방식이었다. 특히 “그와 관련해 더 이상 다른 정보는 없는가, 당신이 말한 것에 더 포함될 만한 이야기는 없는가?” 식의 구조질문은 거리노숙 생활과 유대에 대해 가능한 모든 정보를 섭렵하도록 하였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 알고자 하는 거리문화와 동료들간 관계에 대해 충분히 이해되었다고 판단되는 시점에서 인터뷰를 종료했다.

인터뷰는 상담보호센터나 노숙지역 부근 식당, 현장 상담소 등의 장소에서 약 3시간 정도의 시간을 투여하여 진행했다. 정보제공자에게는 연구의 목적에 대해 설명하여 인터뷰 및 녹음에 대한 동의를 얻었고, 인터뷰 녹취록은 연구목적 외에 쓰이지 않는다는 것과 고유한 개인신상 정보에 대한 비밀 유지를 약속함으로써 연구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했다. 자료수집 기간 동안의 관찰내용은 그때그때 일지로 정리하여 정보제공자들의 일상활동과 환경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삼았고, 인터뷰 내용은 녹음하여 녹취자료를 만들었다.

자료분석은 정보제공자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언어와 행동을 통하여 이면의 의미까지 찾아내고 해석함으로써 노숙인끼리의 유대의 본질을 이해해 보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되었는데⁵⁾, 구체적으로

4) 주요 정보제공자의 일반적 특성

정보제공자	성별	연령	최초 노숙 시기	거리노숙기간	인터뷰 당시 숙박장소
안씨	남성	52년생, 53세	2005년	약 3개월	쪽방/상담보호센터
현씨	남성	70년생, 37세	1998년	5년이상	을지로/쪽방/상담보호센터
김씨	남성	63년생, 44세	1997년	5년이상	을지로/쪽방/상담보호센터
오씨	남성	52년생, 55세	2004년	약 1년	회현역
장씨	남성	54년생, 53세	1997년 이전	5년이상	서울역/상담보호센터
정씨	남성	67년생, 40세	2004년	약 8개월	종로공원/쪽방/상담보호센터
차씨	남성	57년생, 50세	2005년	1개월 미만	상담보호센터
이씨	남성	50년생, 57세	1997년 이전	10년이상	영등포역

- 5) 기어츠(Geertz, 1993)는 표상으로서의 문화와 구분하여 비가시적 문화의 차원에 주목했다. 그는 문화란 역사적으로 전승된 의미의 패턴으로서 상징으로 체현되어 나타나는 것이라 했다(송재룡, 2002: 11 재인용). 스프래들리(1979: 6)도 문화기술학자는 행동을 관찰하지만 그 행동의 의미에 관해 조사

는 스프래들리(1979)의 안내를 따랐다. 스프래들리의 자료분석 작업은 자료수집과 분석을 반복하는 순환적 과정을 거쳐 진행되는 연구로서, 기술적 면접을 통한 영역분석 -> 구조적 면접과 분류분석 -> 대조적 면접과 성분분석 -> 주제분석의 순으로 진행한다. 우리 연구에서는 영역분석과 분류분석 기법을 중점적으로 적용하였고, 일부 영역에 대해서는 성분을 분석하였으며, 최종단계에서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분석을 실시했다. 전 과정에서 연구자들은 수집된 자료들을 통해 뽑아낸 영역과 의미들을 갖고 토론과 상호검토를 거쳤으며, 연구에 참여치 않은 동료회합과 정보제공자를 소개한 현장실무자의 의견을 수렴해 분석내용이 타당한지 점검했다.⁶⁾ 마지막 분석 단계에서는 특별히 몰입과 문화적 상황의 구성도 만들기, 문화적 상황의 개관 요약하기 등의 방식으로 주제에 접근코자 했다.

영역분석과 분류분석을 통해 확인된 주요 영역은 (1) 낯선 세계의 이방인, (2) 동료 도움으로 노숙에서 살아남기, (3) 협력과 경쟁으로 밀착, (4) 비행으로 혹은 커뮤니티로 엮히기였다. 이들 영역은 거리노숙인들의 동료관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었다. 이들 중 세 번째와 네 번째 영역은 두 요소를 구별짓는 기준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그 의미를 분명히 하기 위해 성분분석을 실시하였다. 협력과 경쟁으로 밀착하기 영역에 대한 성분분석 결과, 협력과 경쟁의 경계지점이 생존자원으로서의 속성을 유지하는지 여부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협력과 경쟁은 일견 모순적이지만 모두 거리노숙인들의 유대에서 활발하게 보이는 문화적 양상들인데, 이에 대해 노숙인들은 개별 노숙인의 생존에 직접 도움이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의 대조 차원에서 그 의미를 구분하고 있었다. 또한 비행으로 혹은 커뮤니티로 엮히기 영역에서 이러한 대조의 차원은, 노숙인 이미지에 대한 태도와 자기 정체성 유지와 관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주류사회의 기준으로 볼 때 다분히 음성적인 거리문화들과 나름대로 긍정적 기능을 하는 커뮤니티 형성은 한데 뒤엎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을 변별하는 지점이 노숙인 정체성을 어떻게 수용하느냐의 문제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거리노숙이라는 문화 속에서 노숙인들끼리의 유대가 생존과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과 결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는 크게 (1) 새로운 고향으로서의 의미, (2) 인정받기 위한 대체집단으로서의 의미, (3) 세계 내 구별을 통한 자기 정체감 유지의 의미라는 주제로 세분되었다.

하기 위해 행동의 이면을 본다고 했다.

6) 질적 연구에서 연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 중 하나는 지속적인 현장 참여와 신빙성 구축을 위한 자료원, 방법, 연구자 다원화 기법이다(Crewell, 1998). 본 연구에서는 현장 관찰, 정보제공자의 다원화, 연구자 다원화가 신뢰성 확보의 주 방안이었다.

4. 연구결과

1) 유대 형성의 과정

노숙세계에서의 동료관계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영역분석과 분류분석을 실시한 결과, 우리는 ‘낮선 세계의 이방인’, ‘동료 도움으로 노숙에서 살아남기’, ‘협력과 경쟁으로 밀착’, ‘비행으로 혹은 커뮤니티로 얹히기’의 4개 영역을 도출할 수 있었다.

이 주요 영역들은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노숙세계에서 동료관계가 어떻게 생존자원이 되어 가는지 그 과정을 탐색할 수 있게 해 준다⁷⁾. 즉, 노숙인에게 거리에서 맺는 동료 노숙인들과의 유대는 처음 경험하는 노숙세계의 낯설음과 생존의 위협을 관계 맺기를 통해 해소하는 일종의 적응 노력이다. 그렇다면 노숙인이 어떻게 비슷한 처지의 동료들을 생존자원으로 획득해 가는지, 분석을 통해 밝혀진 주요 영역들을 살펴보기로 하자.

(1) 낮선 세계의 이방인 : “오늘 하루는 어디서...”

‘오늘 하루 밤은 어디서 지내야 할지가 당장 걱정이 되는 거예요(현씨)’

노숙인들은 공히 막다른 길에서 “아~ 갈 데는 거기밖에 없다”며 거리노숙을 선택한다. 친구한테 사기를 당하거나 신용불량, 실직 등으로 삶의 터전을 나와 사우나 같은 곳에서 지내다가 “땡전 한 푼 없는 캄캄한 상황”에 놓인다.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마음 상태가 안 좋으니까, 정리가 안 되고 죽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그러니까 차라리 난장 까자”는 심정으로 노숙을 시작한다. 어느 지붕 아래도 맘 편히 누울 곳이 없어 거리를 방황하게 되는 노숙인의 삶은 “오늘 하루 밤은 어디서 지내야 할지가 당장 걱정”이 되는 ‘하루살이’의 삶이다. 그러니 “오늘 하루가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게 유일한 바람이 된다.

처음에는 혼자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다 “밤이면 잠을 안 자고 왔다갔다 하고, 그러다가 피곤하면 공원 같은 데서 눈 좀 붙이는” 생활을 한다. 그야말로 모든 면에서 ‘혼자’가 되는데, 이때의 상황에 대해 정보제공자 현씨는 이렇게 말한다.

“그때는 같이 어울리지 않고 나 혼자 다녔죠. 수원역에서 처음에 거기서부터 시작했어요 ... 심심하

7) 여기서 영역들은 대체로 시간 경과와 함께 배열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이 어떤 노숙인에게나 단선적 과정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단지 이 연구에서는 노숙 생활 초기에 겪게 되는 것들과 이러한 초기의 경험을 지나서 겪게 되는 것들을 순차적으로 이해해 보고자 했다. 우리가 어떤 대상을 변화 ‘과정’에 초점을 두고 이해하고자 할 때, 그것은 본질적으로 시간의 흐름을 전제로 하여 설명되기에 용이하기 때문이다.

쥬 혼자 주로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잠이 안 올 때가 그렇게 많아요.”(현씨)

한편, 이러한 과정에서 노숙인이 기존에 맺고 있던 주류 사회와의 관계는 스스로 끊거나 아니면 노숙생활로 인하여 끊기게 된다. 주류 사회와의 단절은 “어려울 때 전혀 안 도와준 가족”에 대한 “평생 안 봐도 후회를 안 할” 정도로 깊은 원망, 도와주려 했다가 그 가족의 엄청난 부채를 꺼안게 되거나 믿었던 친구가 “나를 망하게” 했을 때 느낀 말할 수 없는 실망으로 깊어진다. 노숙의 행색이 분명해질 즈음에는 초라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 연락을 끊거나 피하게 된다. 혹 우연한 마주침이 있을지라도 “내 꼴이 초라하니까, 가방 하나 매고 까만 가방 매고 안전화 신고, 개는 까만 양복입고 넥타이까지 딱 매고 가는데, 아는 척 할까 하다가, 아이구 피해버린 거예요”라고 말하는 상황이 된다.

이러한 이유로 기존의 관계와 답을 쌓은 후에는 더욱 새로운 관계에 대한 필요를 느끼게 된다. “주로 혼자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외로움을 나누기 위하여 노숙생활에서 만나게 된 노숙인과 서로 도움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며 새로이 관계를 형성해 간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노숙을 처음 경험하게 된 노숙인에게는 노숙인들이 모여있는 곳 역시 그들이 그간 살아왔던 세계와는 모든 게 다른 낯선 세계이라는 점이다. 잠자리 만들기부터 밥 먹기, 씻기 등 일상생활에서 무심히, 그만큼 익숙하게 해결해 왔던 모든 것들이 새삼 어렵고 힘들어진다. 노숙인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잠을 청할 때에도 숨겨뒀던 박스나 이불 등 잠자리 도구들로 능숙하게 자리를 만들어 펴는 사람들의 익숙한 몸짓은, 새로 노숙상황을 맞은 사람에게는 낯선 삶 그 자체이다. 그 옆에서 쫓겨나지 않고 별 탈 없이 자리를 마련하는 것은 그만큼 용기를 필요로 한다. 즉 노숙인에게 초기 노숙상황이란 노숙세계라는 낯선 곳에 새로 들어가는 방식을 결정하도록 요구한다.

이렇게 시작된 노숙은 초기엔 “역이나 길거리에서 (밥) 먹으면 사람들이 쳐다보고 지나가는” 것이 “쑥스럽고 쪽팔려” 부끄러운 것이다가,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지고”, 그러다가 만난 다른 노숙인과의 관계 형성을 통하여 일상적인 생활로 변화되어 간다.

(2) 동료 도움으로 노숙에서 살아남기 : “세 끼는 굶지 말아야지”

‘바닥생활을 하더라도 굶어죽지는 않고 얼어죽지도 않았잖아요(김씨)’

노숙생활에서의 생존은 최소한의 자원으로 살아남는 방법은 배우는 일이다. 배움은 대체로 앞서 노숙을 익힌 선배들의 도움 속에서 터득되고 확장된다.

“처음 오늘 애들은 밥 어디서 주냐고 물어봐요, 모르는 애들은. 그럼 알려주지. 그냥 몰른다고 않고 다 가르쳐 줘, 어디서 먹는다는 걸.”(오씨)

“나는 모르는 아저씨네와 와갖고, 야, 너 응, 이케, 응 낱밤 까지 말고 웬만하면은 지하철 그쪽에 안에 들어오면 노숙하는 사람들 많으니까 거기 와서 편하게, 밖에서 난장까지 말고 편하게 와서 자라는 식으로 해가지고...”(정씨)

그저 어디에서 뭘 준다는 간접적인 정보를 알려주는 정도이지만 모든 면에서 신참인 사람에게는 범죄자가 되지 않고 살아갈 방안을 얻는 기회가 된다. 이에 대해 정보제공자 정씨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그때 당시는 엄청 컸어요, 도움이. 자세히 가르쳐 줬잖아요. 그게 없었다면 나쁜 짓을 했을 거 같아요. 뭐 배고프고 돈도 없는 상태서요, 남들한테 술 먹는 사람한테 가서 훔칠 수도 있는 거구요, 나쁜 쪽으로 많이 빠졌을 거예요.”(정씨)

사실 노숙생활 중에는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다양한 시도가 있다. 사무실을 다니면서 문구잡화류를 파는 행상부터 전단지를 돌리거나 지하철에서 신문을 걷거나 파지를 줍는 일까지 최소한의 돈이라도 만지려고 노력한다. 또 배타기 등 손에 안 맞는 일로 크게 고생했던 경험들을 갖는다. 어떻게 하든 인력소장 눈에 띄어 “데마찌”(퇴자)를 당하지 않으려고 노력해 보기도 한다. 특히나 새벽일을 나가야 하는 경우에는 거리에서 자다가 시간대를 못 맞추는 일이 없도록 신경써야 한다. 이런 때 지하철도에서는 새벽 네 시 반이면 일어나 새벽시장이나 인력사무소, 혹은 일자리카지 걸어야 한다.

이런 노력들이 막상 노숙을 탈출할 정도의 안정적 일거리로 안착되지 못하고 힘들다고 느낄 즈음, 동료 노숙인들을 통해 또다른 대안적 용돈벌이 방법을 익히는 게 다반사이다. 꼬지나 교회코스 돌기로 불리는 일을 통해 많은 노숙인들이 하루 8천원에서 1만원, 혹은 그 이상의 구제비 즉 현금을 만질 수 있다. 교회의 목사님이나 관리자와 친분을 쌓게 되면 교회 청소, 화단 정리, 무료급식 봉사하기 등을 통해 용돈을 벌기도 한다.

한편, 적은 수입으로 노숙을 유지하려면 자원을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제설함 안이나 거리의 원두막 천장 같은, 남들 눈에 잘 안 띄는 아지트를 만들어 중요한 짐을 보관한다. 이런 자원 관리의 “셈터 같은 데 들어가 누구 신경 쓰고 부담 주고받을 일”도 없는 “혼자만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이다.

노숙상황에서 살아남으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노숙인들은 점차 무너지고 버틸 줄 알게 된다. “처음에 발자국 소리만 나도 눈이 떠지던” 예민함은 “누가 싸우고 병이나 깨고 그러면 모를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릴” 정도가 된다. 무너지고 버티는 것이란 결국 “어떻게 부딪혀 보면서 바닥생활을 하더라도 굶어죽지는 않고 얼어죽지도 않고 버티고 사는” 방식을 지속시키는 전술이 된다.

말하자면 노숙생활에서 선배 노숙인의 존재는 그야말로 새로운 낯선 세계에 던져진 노숙인의 막막함과 외로움을 실질적으로 해소시켜 주는 중요한 자원이다. 다시 말해 모든 자원을 고갈시키고 노숙에 이르면, 노숙에서 이탈하는 문제보다는 그 상황에서 적어도 굶지 않고 끼니는 찾아 먹어야 한다는 게 지상과제가 되고, 이때의 절박함을 덜어주는 데 노숙선배로서 동료들의 존재는 절대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경험된다.

(3) 협력과 경쟁으로 밀착 : ‘여러 사람이 갈라 먹지’만 ‘다 망하지는 않게’

‘내가 있으면 또 주고 없으면 달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다 생활을 해 나가는 거죠(오씨)... ‘어디서 뭐 준다 하면 다 끌고 온다구. 그건 같이 죽자는 얘기야(장씨)’

노숙인의 협력은 일차적으로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자원을 공유하는 데서 두드러진다. “주변에서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러면 나눠 먹고 그러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혼자 먹고 그러지는 않아. 여러 사람이 갈라먹지. 서로 도움 주고 그러는 거지”, 혹은 “안됐다 싶으면 재우고, 차비까지 줘서 보내고, 아 - 밥 사먹는다고 2천원만 달라고 그러면, 그래 밥 사먹으라고...”라고 하면서 작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자원을 함께 나눈다. 그나마 물적 자원이 없는 경우에는 자신이 가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 나눔이다. “금전으로는 못하고, 단순하게 도움 수 있는 방법으로 돕는 거지. 밥이나 잠자리 정보 같은 거로”, “코스 돌면서 이 사람이 모르는 거는 내가 가르쳐주고, 또 이 사람이 아는 거를 너한테 가르쳐주고” 하면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다.

때로는 일방적으로 인정을 베풀기도 한다. 현씨는 “젊은 앤데 장애가 있더라구요. 오락실에서 맨날 밥도 안 먹어 빼짝 말라가지구요. 그래서 평일날은 안 데려가고 일요일날 같이 코스를 가르쳐주고 그래요. 일요일은 평일보다 돈이 좀 되거든요. 처음에 낯설잖아요. 참 안돼 보이잖아”라며 ‘인정으로 도와줬다’는 사례를 소개한다. 이러한 예들은 누구보다 자신이 어려움을 많이 겪어 본 데서 나오는 동질감과 연민의 표현이다. “어려서부터 고생을 했기 때문에 애들을 보면 외면하기 힘들다”는 정보제공자 오씨는 이에 대해, “제가 옛날 생각이 나 가지고, 참 잔정이 많아요, 그래서 참 안 됐다 싶으면 재우고, 차비까지 줘서 보내고...”라고 이야기한 바 있다.

“내가 이제 잠자리 불편할 때, 잠자리를 좁지 않고 좀 따뜻하게 보내는 방법, 내가 밥 먹는 일 하고, 돌아다니다 보면은 세면도 못하고 제대로 닦지 못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알려주고, 그리고 서 이제 내가 오갈 데 없고 내가 가지도 못하고 왔다갔다 방황할 때, 그때 도와줄 수 있을 때, 그때 정을 주는 거죠.”(정씨)

이렇듯 생존의 위협상황에서 어떤 때는 밥도 사 주고 챙겨주며, 일방적인 정도 베풀고 잘해주는 가운데 친근감이 생기고 신뢰관계가 생기게 된다.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믿음이 쌓일 경우에는 함께 어울려 다니게 된다. 함께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시비도 막고 함께 시간도 때우면서, 괴로운 마음도 함께 나눈다.

“우리가 마음이 괴로울 때는 돈이 있건 없건 화투 가지고 뽕을 친다구. 그럼 한 몇 천원어치, 5천원어치 걷어가지고 그걸 갖고 라면 사먹는다고, 그러면 끝나는 거여. 그냥 하루 스트레스 푸는 거여 그걸로.”(오씨)

때로는 “잠자는데 발로 툭툭 차는” 시민들의 시비를 막아주거나 경범죄로 생긴 벌금을 물어주는 등 안전판이 되어준다. “누가 터치를 해도 막아준다”는 것은 노숙세계에서 한편으로는 주류 시민사회에, 한편으로는 노숙 동료들에게 이방인의 존재였던 혼자 몸의 고립감을 안전한 느낌으로 전환시키는 계기이다. 앞을 내다보는 쪽으로 가라고 충고해 주고, 더 험한 난장을 까지 않게 끌어주고, 도둑질 같은 나쁜 길로 안 가게 붙잡아 주고, 술 먹고 완전히 망가지거나 방황하지 않게 잡아주는 길잡이 역할도 해 준다.

“그 아저씨 만나기 전에는 툭하면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방황하고, 말하자면 시계바늘 있잖아요. 벽시계 보면은 추가 왔다갔다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내가 흔들렸어요. 흔들렸는데, 그 아저씨가 흔들리기 않게끔 잡아줬던 게 고마워요. 그 아저씨가 그때 잡아주지 않았으면은 거리에서 완전히 못된 놈들 만나갔고, 지금 내가 이렇게까지 못 왔을지도 몰라.”(정씨)

정리하면 노숙인들끼리의 협력관계는 유용한 정보를 나누고, 작은 자원을 나누며, 정을 나누고, 안전판이 되며, 잘 끌어주면서 만들어진다. 이러한 노숙인들 사이에서의 협력은 “내가 있으면 또 주고, 없으면 달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다 생활을 해 나가는” 생존의 중요한 방편이고, 동시에 노숙생활로 뒤바뀌어버린 시·공간적 지각 속에서 노숙이 주는 “스트레스를 풀고”, 노숙이라는 무료함을 함께 짊어지고 가는 정서적 안전판이다.

그러나 노숙인들의 ‘있으면 주고 없으면 달라 하는’ 협력도,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는’ 관계도 그리 오래 가지는 못한다. 노숙동료와의 친밀한 교류가 줄타기와 같이 위태롭고 깨지기 쉬운 것은 이들이 워낙 희소한 자원을 갖고 경쟁해야 하는 대상이기 때문이다.

“왜 싸우냐. 예를 들어서 내가 한 갑을 샀어. 그럼 내 놓잖아요. ㅎㅎ 그럼 아는 사람이 다섯 명이 나 열 명이 있단 말이에요. 야, 너도 하나 줘라 그러다 보면 내 필 게 없어. 그러니까 안 내놓고 있어도 없는 척 한단 말이에요.”(장씨)

“커피 내 노면 100개짜리인데 한웅큼씩 집어간단 말야. 뭐 싹쓸이를 해 가 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면 비누도 놔도, 수건까지 다 해 놓는다고요, 삼푸까지. 교회에서. 그럼 싹쓸이를 해 가 버려요. 토막 비누까지. 싹쓸이를 해 가서 이수라장이야.”(장씨)

특히 노숙인들이 용돈벌이의 주요한 출처로 활용하는 교회 구제비 정보들과 관련해서는 이들이 어디까지 협력하고 어디부터 경쟁하는지 그 경계를 잘 보여 준다. “하도 들쭈서 놔갔고” 점점 “다리뭉 파는” 일이 잦아지면서 교회순례 코스나 정보는 “웬만하면 가르쳐 주지 않는” 것이 된다. “한 사람이 이것 받았으면 그거로 끝내야 되는데, 사람이 받고 한번 두 번 세 번 계속 왔다갔다 도는”, 이들 표현으로 ‘따당치는’ 일이 생기면서 “액수가 내려가기도” 하고,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며, “사무실 직원한테 걸리면” 아예 없어지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교회순례와 같은 정보는 점점 “가르쳐 주면은 조용히 받고 가는” 사람을 선별하여 제공하게 되고, 그렇지 못할 사람은 “따돌리게” 된다. “이사람 저 사람 데리고 다니니까 사람이 점점 더 붙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사람을 많이 데리고 다

니면 안 되겠다 해갖고 열명 데리고 올 거를 일곱명을 떼어버렸어요. 데리고 오면 계속 새끼를 치거든요. 그러면 교회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다 보면 깨진다고요”라고 하는 이야기에는 그나마 작은 자원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생존의 절박함이 있다.

경쟁의 영역은 노숙생활 전반에 걸쳐 있다. 노숙이 워낙 기본적 생존을 유지하는 데 온 힘을 기울여야 유지되는 생활이니만큼, 희소한 자원을 보전하는 데서 경쟁하지 않은 영역이란 없다. 우선 따듯하고 남의 시비에 쉽게 노출되지 않는 안전한 잠자리를 맡아야 한다. 먼저 자리잡은 사람에게 자리의 의례 양보해야 한다는 ‘지하도 법칙’은 과도한 경쟁으로 싸움이 되거나 해서 서로에게 피해가 가는 것을 막아내는 그들 나름의 지혜이다. 잠자리 재료인 박스나 이불을 잃어버리지 않게 관리하고, 커피나 담배같은 기호품을 나눠주는 데 민감하다. 수중에 “돈이 있다고 자랑을 안” 한다. “돈이 없어서 찢찢매 죽겠는” 사람에게 표적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이다. 겨울철 일용직 일거리를 바꿔치기 해 가며 차지하는 ‘리턴 매치’식 방안이 일종의 관습으로 자리잡은 것도 “한 사람만 계속 하면은 못하는 사람은 계속 못하게” 됨으로써 생기는 일종의 경쟁 과열을 관리하는 방편이다.

그래서 자신들의 동료관계에 대한 노숙인들의 평가는 부정적일 때가 많다. 예를 들면, “기브 엔드 테이크” 하는 관계, “수박 겉핥기”의 관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관계, “친구라고 보기에는 택도 없는” 관계인 것이다. 정보제공자 안씨의 말은 자신들의 관계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친하면 이 세계에서 친하다고 해서 얼마나 친해지겠어요. 그건 다 똑같아요. 얼마나 진짜 깨박쟁이 친구 아닌 이상은, 몰라요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친하다가도 싸우는데 싸움을 안 해야 정상인데...”(안씨)

정리하면, 노숙인끼리의 관계가 빈번하게 협력에서 경쟁으로 전환되는, 그들 표현대로 ‘아수라장’이 되는 것은 이들이 워낙 자원의 부족에 시달리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만큼 노숙생활을 하는 노숙인에게 생존의 자원을 관리하려는 노력은 일상적이고, 노숙인들간의 유대는 생존 자원의 관리라는 기본적 제한성에 바탕을 두고 형성된다.

(4) 비행으로 혹은 커뮤니티로 얹히기 : “지하도 법칙이 있어요”

‘고정적으로 자는 사람 있는지 그것부터 파악해갖고 그때부터 자리를 잡는 거죠. 원래 자리 주인이 와 갖고 여기 내 자던 자리라고 일어나라면 일어나야 돼요. 지하도 법칙이 그거예요.(김씨)’

갈 곳 없는 막막함 속에서 처음 발을 디디게 된 역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생존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소중한 자원이다. 그러나 때로는 이렇게 만난 사람들에게 사기를 당하거나 피해를 입게 되는 일도 허다하다. 정보제공자 정씨는 “모르는 형님이 와갖고 내가 밥 사줄 테니 먹으러 가자고 하는 거예요. 식당에 가서 감자탕을 시켜 먹었어요. 그런데 계산을 하는데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신분증

맡겼지. 옷을 다 벗기고 알몸으로 쫓겨난 거예요”라고 자신이 경험한 사례를 소개했다. 당장 하루를 지낼 곳이 없고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겠다는 제안은 누구라도 쉽게 넘길 수 없는 유혹이다. 그래서 쉽게 신용사기나 취업사기를 당하기도 한다.

직접적인 사기의 피해 대상이 되는 경우 말고도 다른 노숙인들과 어울리는 과정에서 비행에 연루되기도 한다. 짝 짝여진 직장 일과 가정의 소소한 의무들로부터 비껴 나왔을 때 넘치고도 넘치는 시간은 노숙인들에게 어떻게든 시간을 소비해야 하는 과제를 던진다. 그때 함께 시간을 보내줄 수 있는 상대처럼 긴요한 것은 없다. 그래서 “누가 하자면 같이 따라 다니고 무의식적으로 시간 때우는” 것은 노숙세계의 대표적인 시간관리 방식이 된다. 그러다가 “돈 벌러 나가 돈 있으면 친구들과하고 인터넷 채팅에 빠지기”도 하고, “장난삼아 경마나 경륜 같은 도박을 배우다가 그게 중독에 빠지게 되면 그게 헤어날 못해서 컴퓨터, 노름, 오락, 그런 쪽으로 많이 빠지게 되기도” 한다. 사실 대부분의 문화활동이 구매력을 필요로 하는 사회에서 담배 하나에도 예민해지곤 하는 척박한 상황의 노숙인들이 다른 그럴 듯한 놀이들을 찾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비행으로 얹힌 관계는 삶의 터전을 역 주변 두고 있는 노숙인들로서는 쉽사리 끊기 어려운 유혹이다. 노숙생활에서 어렵사리 일용직 일을 하거나 취직을 한다 해도 퇴근 후에 마땅히 갈 곳이 없어 다시 역전에 올 수 밖에 없는 이들은 기다리는 동료들을 만나게 된다.

“집 있는 사람들은 일 끝나면 집으로 퇴근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어디로 퇴근해요, 역전이에요. 갈 데가 없으니까 역전이나 가자.”(이씨)

때로는 돈을 벌어서 역전을 떠나고자 시도 했던 사람들도 이미 형성된 인간관계 때문에 쉽사리 역전을 떠나지 못한다. 얼마간 돈을 벌어도 주로 술 마시느라 돈을 모두 털려야 하는 역전에 나오는 걸 피하려는 노숙인들이 다방이나 사우나 같은 데 있기도 한다. 그러나 정보제공자 이씨가 말하듯 “그런 애들 찾으러 다니는 못된 애들”의 “야, 이 새끼야, 너 임마 한번 안 와? 너 술 한잔 사”라는 구체적 압력을 피하기는 쉽지 않다. 그 때문에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가 “한잔으로 끝나야 되는데, 한잔 두잔 하다 보면, 돈 다 쓰고 매맞는 일”도 있다. 이렇게 어울리다가 “잘못한 것도 없이 콩밥 먹는” 일도 생기고, 심지어는 “노숙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기 때문에 자다가 보면은 돈을 다 뺏기는” 일을 겪기도 한다. 이렇듯 언제나 인간적 정을 느낄 수 있다는 기대를 주기도 하지만 쉽게 털기 힘든 부정적 압박이기도 한 노숙인들끼리의 관계는, 역전이라는 상징적 공간에서 더욱 잘 드러난다. 이를 두고 노숙인들은 “역전은 마약보다 무섭다”고 표현한다.

“역전이라는 데는 노숙자들 모여 있는 데는 마약이에요. 마약보다 더 무서운 곳이에요. 자기는 잠깐 불일만 보러 온다고 왔다가, 불일을 봤어요. 그리고 내려가려고 했는데, 얘기하다 보면 다른 사람이 나타나, 그러다 보면 술 한 잔 하러 가요.”(이씨)

생존의 위협 속에서 형성된 비행으로 얹힌 관계는 혼자 힘으로는 끊어내기 어렵다. 개인적으로는

‘내가 안 망가지게 거리두기’를 하거나, 아예 ‘짜울 일 나쁜 길 피하기’, ‘자존심으로 버티기’ 등의 방법으로 비행에 얽히는 것을 피해보려 한다.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것은 이를 보다 집단적으로 막아내는 하나의 방법이다.

노숙생활 커뮤니티는 노숙인들 사이에서 통하는 ‘지하도 법칙’에 의해서 운영된다. 지하도 법칙은 을지로나 시청, 영등포역, 회현역 등 노숙인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자율적으로 통용되는 법칙이다. 이 법칙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는 잠자는 공간에 관한 것이다. 지하도의 공공공간은 지하도 법칙에 의하여 사용권이 원활하게 사유화된다. 커뮤니티가 형성되고, 그 멤버로 오래 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대개 자기 자리가 있어서 자리를 옮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노숙생활 커뮤니티가 형성된 곳에서는 “고정적으로 자는 사람이 있는지 그것부터 파악해 갖고 자리를 잡는” 눈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형성된 자기 자리는 커뮤니티의 보호를 받는다. 정보제공자 김씨는 “이불 갖다놔도 누가 손 안 댄다”며 “그 사람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것이 관례라고 말한다.

커뮤니티가 유지되는 전제는 그들의 공간 점유가 시민사회와 열은 긴장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지하도를 관리하는 지하철공사의 직원 혹은 경찰, 청소부 등과 무언의 협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술판을 벌이지 않고 뒷정리를 잘하는 것이다. 정보제공자 오씨는 이에 대해 “보통 거기서 자면은 밤 11시 반이나 12시 되서 잠을 자요. 그러고 나서 4시 반이나 5시 사이에 깨가지고 박스 깔아놓은 것 다 치우고, 술 먹은 거도 티 안내고 다 갖다가 빈병은 빈병대로 휴지는 휴지대로, 버리는 데다 딱딱 정리해 갖고 버린다구요. 그러니까 아예 직원들이 뭐라고 말을 안 해요”라고 설명한다.

이렇듯 노숙인들끼리의 질서 잡힘을 상징하는 ‘지하도’라는 공간 내에는 이를 주도해 가는 리더가 있다. 커뮤니티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고참이 되어야 한다. 이를 정보제공자들은 ‘터줏대감’으로 표현했는데, 터줏대감의 공간내 입지를 잘 나타내는 예로 “그 형님은 모르는 사람이 없더라구요. 종로경찰서 형사들도 가끔 검문하러 내려오거든요. 그런 형사들하고도 터놓고 지내니까...”라는 일화를 소개하고 있다. 터줏대감들은 대개 “50대 중반 이상, 지하도에서 난장을 10년 이상 했던” 사람들이다. 물론 노숙을 얼마나 했느냐 뿐만 아니라 힘이 있어서 “군기를 잡을 수 있어야” 하고, 때로는 집단의 힘을 이용하는 지혜도 있어야 한다. “힘이 없으면 깡판 부리고 주정 부리는 사람들에게 맨날 당하니까” 그렇고, 지하도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법칙에 대해 사람들의 동의와 자발성을 이끌어내야 하기 때문에도 그렇다. 을지로에서 노숙하는 정보제공자 김씨는 자신이 숙박하는 지역 커뮤니티의 질서 유지에 대해 “자율적이니까, 지하도 안에서는 술 못 먹어요. 처음 오는 사람이 먹으려고 그러면 나가서 먹으라고 쫓아내죠”라고 설명한다.

그런 만큼 커뮤니티에 속하여 질서를 지키는 노숙인들은 커뮤니티의 보호를 받는다. 지하도의 리더들은 파지나 고철을 주워서 돈을 만지고, 그 돈으로 함께 하는 노숙인들에게 호빵이나 봉어빵을 사주면서 저녁을 제공하고, 잠자리를 위한 침낭이나 박스를 챙겨주는 등 자원을 나누어 가면서 자기 자리를 지켜간다. 더불어 커뮤니티에 속한 노숙인들은 자원을 분배 받을 뿐 아니라, 지하도 내의 사유화 공간을 보호받는다.⁸⁾

“시청하고 남대문하고 서울역하고 따지면 거기가 더 따뜻해. 그래도 탁한 애들은 못 오지, ... 그 지역에서만 노는 거야, 저 남대문 시청 앞에서 노는 사람은 시청 앞에서만 자는 거고, 을지로에 있는 애들은 을지로에서 자는 거고, 딱 ते는 안가요. 몇 사람끼리.”(오씨)

이쯤 되면 지하도라는 노숙지역은 노숙인들끼리의 끈끈함을 바탕으로 피나 공공하고 안전한 사유공간이 된다. “자기네들 터전”, “원래부터 거기 자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필요에 따라서는 질서유지에 협력하지 않는 비슷한 처지의 노숙인을 집단의 힘으로 몰아내거나 쫓아내 버리고 영역을 확보한 커뮤니티 성원들은, “새까만히 웃도 안 빨아” 욕을 먹이는 ‘저들과 다른 우리’로 구분하면서, 그 ‘우리’ 안에서는 부족하나마 서로 자원을 나누고, 인정을 나누면서 커뮤니티를 지켜나간다.

2) 거리노숙인 유대형성의 문화적 의미

앞서 살펴보았듯이 ‘낯선 세계의 이방인’, ‘동료 도움으로 노숙에서 살아남기’, ‘협력과 경쟁으로 밀착’, ‘비행으로 혹은 커뮤니티로 엮이기’의 영역들은, 거리노숙인들끼리의 유대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결국은 생존의 위기는 물론 주류사회와 새로운 노숙세계 양쪽에서 이방인으로서 정체성의 위기를 경험하는 노숙인들이 자신들의 위기를 완화시켜 나가는 제반 동맹 활동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활동은 역전이라는 곳에서 함께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냈던 경험들, 혹은 지하도라는 곳에서 술 마신 사람들을 밀어내며 음식과 잠자리와 소소한 오락거리를 나누는 일상들로 나타난다. 우리는 이러한 일상적 문화 이면을 보고자 했고, 이것을 통해 거리노숙 문화에서 동료끼리의 유대란 거리노숙인들에게 새로운 고향으로 느끼게 하는 강력한 경험이 되기도 하고, 형님으로 인정받으며 잠시라도 자신의 존재감을 느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며, 한편으로는 그들 내부에서의 구별짓기를 통해 자기 정체성을 유지하는 틀이기도 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1) 새로운 고향화

‘어디가도 정들면 내 고향이듯이, 나도 여기서 오래 있다 보니까, 어딜 가도 여기 영등포 역전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그래도 내 친구도 있을 거고, 동생들도 있을 거고, 선배들도 있을 거고 이 사람들 과연 어떻게 살까?’(이씨)

보통 사람들에게 거리는 어딘가를 목표로 이동하면서 잠시 지나치는 통과 공간이며, 사적인 장소에서 할 수 있는 것과는 구분되는 역할을 갖는 공공 공간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노숙인들에게 거리는 식사를 하고 잠을 자는 사적 생활의 공간이면서, 잠시 지나치는 곳이 아닌 정주의 공간이기도 하다.

8) 이재혁(2004: 108-109)은 인간 역사에서 호혜성은 집단의 결속과 유지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해왔다고 말한다. 그런데 긍정적 방향의 호혜성이 도움과 협력이라면 부정적 호혜성은 양갈음과 보복이며, 긍정적 호혜성에서의 기대뿐 아니라 이 부정적 호혜성이 갖는 사전적 제지 효과는 집단 내의 규범적 질서를 만들어내는 효과적인 기제이기도 하다고 설명한다.

노숙인들 사이에서 영등포역, 서울역, 을지로는 목적지로 이동하기 위한 정거장으로서의 ‘역’의 의미보다는 가야 할 종착지이다.

집을 나와 이곳저곳을 떠돌다 정착한 역은 처음에는 두려움으로 가득한 곳이 된다. 그러나 점차 얼굴을 아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조금씩 도움을 받게 되면서 낯설고 두려움의 공간이었던 역이 “어디 가도 정들면 내 고향이듯이”라고 표현되는, 고향 같은 곳이 된다. 해서 정보제공자 이씨는 거리를 떠났다가도 다시 찾기도 하고, “가끔 한번씩 와갖고 옛날 생각하고 밥 한 그릇, 술 한잔 사주고 가는 사람도 많다”고 소개한다. 특히 생각해 보지 않았던 위기 상황에서 거리노숙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거리 생활은 ‘머리에 백힐’ 정도의 강한 경험이다. 이 경험들은 노숙을 이탈한 이후에도 자신이 노숙했던 지역을 찾아가는 이유가 된다.

“자기들 어려웠을 때, 집에서 어렵게 나왔지만 어려웠을 때, 여기 사람들한테, 여기 동생들한테 얻어먹은 것도 있고, 따뜻하게, 여기서 이불 남는 게 있으면, 이사람 출게 자면 갖다 덮여줘야 돼요. 이게 잔정이에요. 추운 데 땅바닥에 누워 자는 거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잔정이..., 나도 모르게 여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가장 어려웠을 때 받았던 작은 도움이라도 잊지 못하고, ‘내가 안정이 되었으니까, 밥 한 끼라도 사야 되겠다.’...”(이씨)

다른 한편, 오랫동안 ‘역 근처 떠돌이 생활’을 해왔던 사람들이어서 “그저 보고 듣는 게 여기(역)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노숙지역은 어딜 가도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그래도 내 친구도 있을 거고, ... 이 사람들 과연 어떻게 살까? 궁금해지는” 마치 고향 같은 곳이 된다. “오래 있다 보니까 어디 가도 여기 생각이” 난다는 것이다.

그만큼 거리노숙에 이른 사람들에게 또다른 대안적 방식을 학습하도록 도왔던 끈끈함의 기억은 강력하다. 이는 역으로 거리노숙을 벗어나고자 했을 때 나아간 사회의 경험이 그만큼의 온정과 도움도 기대하기 힘든 곳이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거리노숙인에게 주류사회에서 경험한 사회 관계나 유대의 정도는 대체로 부정적이거나 극히 미약한 것, 혹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 그 이상이 아니기 쉽다. 그런 의미에서 노숙하는 곳은 노숙인들에게 찾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 인정을 느낄 수 있는 곳이다. 설혹 그곳에 내가 알던 특정 노숙인이 없더라도, 그런 형태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있다. 말하자면, 노숙인에게 노숙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은 ‘기다려 줌’이 있는 곳이고, 그런 의미에서 되돌아갈 수 있는 곳이다.

(2) 인정받기 위한 대체집단

‘술직히 바탕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어차피 여기서 인정을 안 해주는데, 우리가 갈 곳은 어디냐. 그러면 오는 데가 전부다 역전이라고..(장씨)’

노숙이란 대개 부정적 경험으로 시작된다. “지나다니는 사람들 보기 창피하게” 밥도 얻어먹어야 한다는 사실은 배고픔을 덜고 생명을 부지할 수 있어서 다행스러운 일이라는 하지만, 인간으로서의 자

존심을 무너뜨리는 사건이다. 이후 생존의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은 노숙 동료들끼리의 협력과 밀착의 정도를 높이는 과정과 께를 같이 한다. 그러므로 초기의 노숙인은 노숙을 하면서 밥 먹고 잠자는 일상활동에서조차 끊임없이 도움을 받아야 하는 존재가 되기 마련이다. 반면 밥 먹고 잠자는 그 일상활동에서 끊임없이 시민들 혹은 역무원이나 공안, 경찰 같은 공권력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때로는 피하거나 굽신거려야 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노숙을 하면서 주류 사회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노숙인은 “잘난 사람”이 되기 힘들다. “우리가 같은 노숙을 해도 돈이 없어서 그렇지 다 똑 같은 사람들이예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가릴 필요 없이”라는 항변에는 그만큼 잘난 사람이 되고픈 욕구가 충족되기 힘든 현실에 대한 한이 서려있다.

그런데 이러한 한스러움은 노숙세계에서 정보의 베테랑이 되고, 생존전략의 선배가 되는 때에 역전될 수 있는 계기를 만났다. 정보가 많아서 잠자리나 급식처, 용돈벌이 정보를 알려줄 수 있는 때가 되면 드디어 이 세계의 ‘형님’이 되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로 격상된다. 정보의 베테랑이 되어 더 많이 확보한 간식거리나 이불 등을 신참에게 나눠줌으로써 노숙인들은 작은 자원으로도 더없이 고마운 사람, 어떤 때는 생명의 은인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더욱이 노숙세계에서는 노숙인들의 필요에 따라 공격 공간을 사유화함으로써 공간의 의미를 재규정하는데, 이렇게 사유화된 공간은 그 영역만큼 내가 제공할 수 있는 자원이 된다. 그러니까 노숙인들이 생존자원의 희박함 때문에 늘 서로 경쟁하고 경계하면서도 한편으로 작은 자원을 나누는 데에 아낌이 없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비로소 인정받는 사람으로서의 존재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일을 안 나간 사람들이 이놈이 일을 나갔으니까, 들어올 시간만 기다려요. 그러다 개가 5만원 벌어요면, 5만원 쓸 때까지는 나이가 어리든 뭐해든 개한테 다 형님이야. 그러면 벌어난 애도 자기 주머니에서 술값이 나가니까, 야 오늘은 내가 사는 거야! 막 으시댄다고 그러다 돈 다 쓰다 보면 싸우고....”(이씨)

위에서 이씨가 소개한 사례는 노숙생활 중 어쩌다 별게 된 적은 돈이 노숙인들끼리의 술판에서 단숨에 없어져 버리는, 일반 시민들 눈에는 어쩌면 한심하고 어처구니없는 현상으로 비춰지는 모습들이 왜 빈번히 연출되는가를 보여준다. 노숙인들끼리의 술판은 무료한 일상의 작은 탈출구이기도 하지만, 누군가가 형님이 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한 것이다. 그러므로 노숙 세계에서 노숙인들간의 유대는 작은 자원으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 인정받을 수 있다는 기대 속에서 보다 깊어진다고 할 수 있다.

(3) 세계 내 구별짓기를 통한 정체감 유지

‘느그하고 나하고는 차이가 있다 이겨지. 왜? 느그는 새까만히 옷도 안 빨고 새까맣게 그러지 만, 나는 옷도 깨끗하게 빨고 남들 앞에 떳떳이 나타난다 이겨야(오씨)’

노숙인들 속에도 구분이 있다. 그들은 끊임없이 ‘느그하고 나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선을 긋고, 다른 노숙인들과의 구별을 시도한다. 구별의 지점은 어떤 경우에는 일반 시민들이 갖고 있는 지저분하

고 더러운 사람들이라는 이미지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생긴다. “그는 새까만히 옷도 안 빨고 새까맣게 그러지만, 나는 옷도 깨끗하게 빨고 남들 앞에 뒤통이 나타난다 이거야. 서울역 가 봐, 냄새가 나서 못 있어요”라는 외침에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노숙인 이미지에 가워지고 싶은 많은 노숙인들의 바람이 있다. 이 밖에도 시민을 대상으로 구걸하는 사람이라는 이미지, 술 먹고 껌 부리는 사람들이라는 이미지, 아무 데나 오줌 싸는 이미지들은 노숙인들에게 끊임없이 그것을 수용하느냐 아니냐를 두고 일상적 선택과 긴장을 요구한다. 그래서 어떤 노숙인은 “다 똑같은 게 아니”라고, “우리는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한다”라고 노숙을 구별하면서, ‘저것들 다 저럴 거다. 싸잡아서 욕 얻어먹는다’ 게 얼마나 억울한 일인지를 호소한다.

그러므로 노숙인들이 서로의 관계를 ‘수박 겉핥기 식’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들의 관계가 드러나는 일상적 영역이 시민사회에 끊임없이 노출되어야 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노숙인들의 일상은 시민들에게 끊임없이 욕을 얻어먹거나 혹은 시비를 겪기도 해야 하는 영역에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부터 생기는 질서와 제일 듣기 싫은 ‘노숙자’라는 낙인을 피하려면 일정한 거리두기가 필요하다. “요만한 일 갖고 트집 잡는” 싸울 일이나 나쁜 길을 피해야 하고, 만나도 “역전 바닥에서는 통조림 하나 놓고 그냥 짹 마셔 버리고 끝내버려야” 한다. 그래서 노숙인들끼리의 관계는 계속 “경계하고”, “마음까지 털어놓지 못하는” 거리에 있다. 어울리더라도 시민들이 생각하는 노숙인 이미지와는 구별하고 싶다는 욕구가 어떤 노숙인들을 ‘자존심으로 버티게’ 하고, 노숙세계 내에서도 보이지 않는 거리를 두게 한다.

때로 이런 구별은 시민사회의 구별과 배제에 대한 저항 속에서 벌어지고 ‘우리’로 묶이는 계기를 맞이하기도 한다. 그때만큼은 “우리가 돈이 없어서 그렇지 다 똑같은 사람들”이 되는 것이다. 정보제공자 오씨는 그때의 느낌을 “그것도 회사에서 막상 나와가지고, 처자식 앵앵거리지 나와서 한번 이런 생활을 해보라 이거야 어쩐가, 어떤 감정이 나나”라고 표현한다. 즉 ‘노그’의 구별에 맞설 때 드디어 ‘우리’의 정체감이 비교적 또렷해진다. 따라서 노숙인들의 동료집단에 대한 비교와 구별은 노숙 이미지에 대한 저항이면서 시민사회의 배제에 대한 두려움과 소극적 저항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5.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거리에서 노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사회적 관계 중 노숙동료 관계를 중심으로 이들의 유대가 어떻게 형성되는지와 그 의미를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거리노숙인의 유대형성 과정을 살펴보면, 새롭게 노숙세계라는 낯선 시·공간에 떨어진 노숙인은 생존과 정체성의 위기를 노숙 동료와의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해 모면해 가는 과정 속에서 긴밀하게 엮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때 노숙 동료와의 관계는 노숙인에게 하나의 생존자원에 해당한다.

주목할 점은 노숙인들의 눈으로 보는 노숙인들과의 유대는 매우 이중적으로 해석된다는 것이다. 노숙인들은 빈번하게 노숙세계에서 동료들과 형성하는 유대라는 것이 그저 피상적인 수준을 넘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들끼리의 관계는 대체로 별 볼일 없는, 가는 만큼 오는, 수박 겉핥기의 관계로 표현된

다. 즉 자신들의 관계에 대한 해석은 부정적이거나 저평가되는 때가 많다. 이는 노숙인들이 노숙세계 내부에 있으면서도 주류사회가 노숙인을 바라보는 외부자적 시각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노숙인들은 노숙세계 내에 있지만 이 세계는 벽이 없는 세계이고, 끊임없이 외부자들의 눈총과 보이지 않는 규제에 직접 노출되는 세계이기 때문에 이들의 자기 정체성은 매우 이중적이다. 거리노숙이라는 상황으로 보면 자원이 적고 가난한 사람들로서의 동질감을 갖고 있지만, 거리노숙 생활에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의 문제에서는 저마다 차이를 보인다. 어떤 이들은 자율적이고 호혜적인 커뮤니티를 형성하여 부정적 노숙인 이미지와 거리두기를 시도함으로써, 노숙인이지만 주류사회 시민들이 생각하고 상상하는 이미지의 노숙인이 되고 싶어하지 않는다. 동료관계에 대한 해석이 몸 따로 말 따로인 것 역시 이러한 자기 정체성의 이중성에서 나온다.

한편, 노숙인들은 노숙세계를 부정하면서도 그 세계를 완전히 떠나지 못하고, 자신들끼리의 유대가 별 거 아니라고 강하게 부정하면서도 그 세계 사람들을 외면하지 못한다. 이는 그나마 별 볼일 없는 노숙인 인생살이에서 자기 존재감을 느끼게 해 주는 것이 노숙 중에 만난 동료들과의 관계이기 때문이다. 노숙인들은 작은 자원으로든 크게 고마운 사람, 은인이 되며, 빈번히 형님이나 아우가 될 수 있다. 노숙인들이 경쟁하고 경계하면서도 작은 자원을 나누는 데에 아낌이 없는 것은,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비로소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서이다. 그런 만큼 노숙동료들과의 유대는 노숙인들이 머리로 인정하는 관계이기 전에 몸으로 경험하고 흡수한 관계라 할 수 있다.

또한 노숙인들에게 동료노숙인의 존재는 생존자원이면서 때로는 새로운 고향이기도 한데, 그만큼 이들에게 물질적 자원도, 정도 메말라 있다. 사실 거리노숙에 이른 사람들에게 생존의 위기에서 또다른 삶의 방식을 가능하게 했던 고마움의 기억은 그때의 절박함만큼 강력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경험한 노숙 세계는 적어도 최소한의 생존에 관한 한 서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가 있는 세계이다. 그것은 노숙인들 스스로 '주는 만큼 받는 것'으로 평가하곤 하지만, 오히려 노숙 세계는 공간의 의미를 재규정함으로써 내 땅도 내 집도 아니지만 잠잘 수 있는 옆자리를 인정해 주고 때로는 안전하게 보호해 주기도 하는, 호혜가 통하는 세계이다. 즉 노숙인들은 공적 공간을 사유화하는 방식으로 주류 사회에서 누군가에서 현실적 도움을 주는 것에 버금가는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호혜의 분위기와 사람 사이의 정은 이들에게 작지만 위안을 주는 것이 분명하고, 그런 의미에서 노숙인들이 말하는 새로운 고향은 이들의 발목을 붙잡는 역할을 한다.

이상의 연구결과가 보여주듯이 노숙인의 거리노숙 생활과 그 속에서 동료관계의 의미에 천착해 보면, 노숙동료들과의 관계는 그야말로 극단적 빈곤상태의 삭막한 세계에서 그나마의 생존과 자기 존재감을 확인하기 위한 동맹자원이다. 그러나 노숙인들은 스스로 인정할 수 있는 관계, 노숙이라는 상황을 벗어날 만한 전망을 함께하는 관계를 갖고 있지 못하다. 어떤 면에서 노숙인에게 노숙이라는 상태는 언젠가는 벗어나야 하고 벗어나고 싶은 상황이고, 이는 노숙 상태를 임시적인 것으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노숙동료 관계에서의 진정성과 지속성에 제한을 준다. 또한 서로서로가 노숙 이탈의 자원과 힘을 갖지 못한 경우가 많다. 즉 이들에게 노숙동료는 없으면 생존이 힘들 정도이고 다른 세계에서 확인받지 못했던 인간으로서의 존재감과 보다 근본적 욕구인 정을 느끼게 해 주는 주요한 사회적 관계이나, 이것이 이들의 상황을 벗어나게 하는 힘이 되지는 못한다는 것을 스스로도 알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노숙인의 노숙생활은 생존 자원의 결핍은 물론 노숙상황을 탈피할 만한 진정한 관계의 결핍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무엇보다 공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노숙인의 생활문화를 낙오된 생활 형태 혹은 일탈적 문화로 보거나, 때로는 범죄시하는 주류 사회의 시선과 관련해 재논의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실상 공적 공간을 활용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 노숙인의 목소리, 그들의 관점은 충분히 고려되거나 존중되지 못했음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 동료 노숙인들과의 관계나 유대가 깊어질 수밖에 없었던 노숙이라는 세계의 생존자원의 희박함, 그리고 생존 노력의 절박함을 들여다보면, 공적 공간을 사유화할 수밖에 없는 노숙인들의 입장이 그저 일탈을 즐기는 것과는 크게 관련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오히려 노숙인들은 자신들의 삶의 형태를 일탈로 보는 주류사회의 시선 때문에 마음놓고 동료관계를 구축하지도 못하며 또 자신들을 경범죄로 처리하는 공권력과 이에 동의하는 시민들에 대한 대응으로 자신들 내부에서도 끊임없이 선 긋기를 하고 있다. 이는 노숙인들을 거리에 그냥 두자는 의미라기보다, 공적 공간을 생활공간으로 점유하는 노숙인의 행위를 시민들이 휴식을 즐기거나 쇼핑을 하고, 혹은 누군가를 기다리거나 지나치는 것과 같은 선상에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논의를 거쳐서도 공적 공간이 그 동안 시민들이 공간을 사용해 왔던 방식으로 정의된다면, 이는 노숙인들은 명백한 무주거자이며 이것 때문에 고통받는다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주거대책은 사회적 차원의 문제로 확대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노숙 문제에 대한 정책 마련과 사회복지 실천 측면에서도, 노숙인 문제의 복잡성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 이는 노숙인 문제에 대한 주요한 대책으로서 노숙인쉼터가 모두 포괄하지 못하는 주거와 가정의 부재, 유대의 부족이라는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뜻한다. 다시 말해 왜 쉼터가 아닌 거리노숙인가라는 질문에 노숙인들의 동료관계라는 측면에서 답해 본다면, 이들이 원하는 사람과의 관계 혹은 공동체에 대한 기대가 기존의 노숙인쉼터만으로 충족되지는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거리 노숙이 허용하는 커뮤니티, 자율성, 사생활 보장에 대한 문제로 풀이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많은 노숙인이 거리를 떠나지 못하는 현실에 기초해 강화되고 있는 현장보호는 보다 질적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응급숙박 장소와 무료 진료소, 아웃리치 활동 등이 노숙인들의 생존현장의 삭막함을 다소나마 덜어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응급숙박소를 중심으로 한 풍경만큼 노숙세계의 삭막함을 잘 그려주는 곳도 없다. 공동체성과 자율성이 살아있는 쉼터, 지불 가능한 저렴한 단신 주거 등 다양한 주거 대책이 하루 속히 현실화됨으로써, 거리에서의 생존 말고도 선택할 수 있는 대안들이 많아져야 한다. 특히 이러한 주거들이 진정한 유대가 형성되는 장소가 되기 위해, 프로그램과 지원 실무자 등의 네트워크가 결합된 주거 지원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한편, 노숙세계 밖에서 외부자의 눈으로 재단하는 노숙인 이미지에 대한 노숙인들의 부정, 노숙 문제에 대한 또하나의 대안으로서 노숙당사자 운동(문헌준, 2005; 김용은, 2001)이 어떤 지점에서 난관을 갖는지 생각해 보게 한다. 노숙당사자들이 노숙인 권리운동의 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노숙인이라는 집단적 정체성에 바탕을 두어야 하는데, 자기부정과 동료부정이라는 경향은 이를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료 노숙인끼리의 자조집단에 대한 모색은 필요하다. 오히려 거리는 자율적으로 생존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 속에서 자조적 성격의 집단이 형성되기도 하는데, 이것이 왜

쉼터에서는 힘든지 검토될 필요가 있다. 실상 쉼터를 중심으로 한 사회복지적 개입은 부드러운 방식 이기는 하지만 주로 노숙인들의 태도의 변화와 적응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경향이 크다. 이 속에서 노숙인들이 거리에서 나름의 유대를 갖고 생존했던 경험이나 그 속에서 느꼈던 어려움은 끊임없이 부정되어야 할 경험으로 무시된다. 거리에서 노숙인들끼리 그나마 보충하고 있던 사람 사이의 정은 하찮은 것에 불과해진다. 그러므로 이후 노숙인들간의 유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자조집단 지원은 쉼터에서 자립하는 경로, 혹은 거리노숙에서 이탈하는 경로 속에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사회복지 실천이라는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거리노숙이라는 것은 정치적, 경제적 문제일 뿐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으로 점철된 일종의 문화적 행동들로 이루어져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노숙문화의 파행성은 어쩌면 노숙인들이 매우 척박하고 삭막한 곳에서 생존, 사회적 인정, 여가, 동료 유대 등 삶의 전반적인 것을 마련하고자 하는 눈물겨운 노력의 결과이기도 하다. 따라서 거리노숙 문제에 대한 접근 역시 이러한 일상성에 새로운 출구를 만들어 주는 것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삭막하고 무료한 노숙생활에서 그나마 위안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결정적인 안전망이 되어 주기도 하는 노숙인들끼리의 부대끼를 대치해 줄 수 있는 것, 혹은 보다 긍정적인 현장 커뮤니티 지원으로 발전될 필요가 있고, 이는 일상적인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공간, 프로그램, 자원 활동의 투여를 필요로 한다. 응급보호에 집중되고 있는 현재의 상담보호센터 외에도 거리노숙 지역 부근에 주간 이용시설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문화활동, 정보 교류 등의 근거지를 제공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또한 지금까지 응급보호를 중심으로 한 정보제공에 치중해 왔던 아웃리치 활동도 아웃리치 활동가들과 노숙인과의 지속적 관계를 발전시키는 방향에서 활동의 일회성을 극복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아웃리치 활동이 질적으로 이루어질 때 노숙인에게 새로운 인간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매개가 될 수 있다. 물론 이의 성과는 단시일에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리하면, 거리노숙 탈피를 위한 노숙인 지원대책과 서비스는 노숙인의 삶에 대한 구체적 이해를 바탕으로, 보다 장기적 계획을 갖고 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참고문헌

- 김애란. 2000. "장애아동 어머니의 스트레스와 사회적 관계망, 사회적 지지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호남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용은. 2001. "샌프란시스코 홈리스 연합의 노숙 당사자 운동". 『도시와빈곤』. 49: 66-77.
- 김홍수영. 2005. "두 도시 이야기: 노숙인을 통해 바라본 도시공간". 『아세아연구』. 48(2): 117-149.
- 남기철. 2000. "노숙기간에 따른 심리사회적 외상이 보호시설 퇴소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논문.
- 노숙인다시서기지원센터. 2001. 『다시서기』. 제30호(10월호).
- _____. 2002. 『거리와 사람들』. 제1호-제2호.
- 문헌준. 2005. "노숙운동의 현재와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민중』. 제44호. 자유무역협정WYO반대국민행동 KOPA 웹진.

(<http://antiwto.jinbo.net/weekly/>).

- 박지현. 2001. "도시저소득층 노인의 사회관계망과 재가복지서비스 욕구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산본 신도시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재룡. 2002. "가족주의와 한국 사회의 '삶의 유형': 두 개의 언어 게임 사이에서". 『현상과인식』. 26(1/2): 9-30.
- 신원우. 2003. "노숙인의 심리사회적 특성과 노숙경험이 노숙전후의 음주문제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논문.
- 안준희. 2000. "노숙자의 정체성과 적응전략: 인지인류학적 접근". 『비교문화연구』. Vol. 6(2): 221-266.
- 유태균 역. 2001. 『사회복지 질적연구방법론』. Padgett, D. K. 1998. *Qualitative Method in Social Work Research: Challenges and Rewards*. 서울: 나남출판.
- 이재혁. 2004. "개인, 호혜성, 그리고 근대 시장". 『사회와이론』. 5: 79-122.
- 최우림. 2000. "노숙자의 노숙력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 Allan, D. T. 1997. "From hobohemia to skid row: Homelessness and American culture, 1870-1950". YALE University Phd.
- Bauman, D. and C. Grigsby. 1988. "Understanding the Homeless; From Research to Action". Austin, TX: Hoggfoundation for Mental Health.
- Bahr, H. M. 1973. *Skid row: An introduction to disaffilia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Blau, P. 1967. *Exchange and Power in Social Life*. New York: John Wiley & Sons.
- Burgers, J. P. L. 1988. "De schaal van solidariteit. Een studie naar de sociale constructie van de omgeving." Amersfoort/ Leuven. (The scale of solidarity. A study into the social construction of the environment)
- Creswell, J. W. 1998.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Traditions*. Sage Publications, Inc. 조홍식 · 정선욱 · 김진숙 · 권지성 공역. 2005. 『질적 연구방법론: 다섯 가지 전통』. 학지사.
- Doorn, L. V. 2004. "Perception of time and space of (former) homeless people". *Dutch long paper*. workshop 4. London.
- Geertz, C. 1993. *The Interpretation of Cultures*. London: Fontana.
- Grigsby, C., D. Baumann, S. E. Gregorich, and C. Roberts-Gray. 1990. "Disaffiliation to Entrenchment; A Model for Understanding Homelessness". *Journal of Social Issues*. Vol.46(4): 141-151.
- Hammersley, M. and P. Atkinson. 1995. *Ethnography - Principles in Practice*. Routledge.
- Harris, M. 1968. *The Rise of Anthropological Theory*. New York: Crowell.
- Snow, D. A. and L. Anderson. 1993. *Down on Their Luck: A Study of Homeless Street Peopl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Snow, D. A., M. Mulcahy. 2001. "Space, Politics, and the Survival Strategies of the Homeless".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Vol. 45(1): 149-169.
- Spradley, J. P. 1970. *You owe yourself a drunk: An ethnography of urban nomads*. Boston: Little & Brown.

- Spradley, J. P. 1979. *The Ethnographic Interview*. USA: Wadsworth Group/Thomson Learning. 박종흡 역. 2003. 『문화기술적 면접법』. 시그마프레스.
- Tosi, A. 1999. "Homeless and Housing Factor". *Coping with Homelessness: Issues to be Trackled and Best Practice in Europe*. Aldershot: Ashgate.
- Whittaker, J. K. and J. Garbarino. 1984. *Social support Networks: Informal Helping in the Human Services*. New York: Aldien pyblisniy company.
- Wright, T. 1997. *Out of Place: Homeless Mobilization, Subcities, and Contested Landscapes*.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Wright, J. D., B. A. Rubin, and J. A. Devine. 1998. *Beside the Golden Door: Policy, Politics, and the Homeless*. Walter de Gryyter, Inc.
- 강원일보 2005년 11월 30일자. "노숙자 겨울나기(3) 노숙자 대책 없다".
- 매일경제. 2005년 9월 13일자. "거칠어진 노숙자 시민들은 불안하다".
- 세계일보. 2005년 10월 20일자. "노숙자 울리는 노숙자 대책".
- 오마이뉴스. 2005년 11월 27일자. "이번 겨울은 또 어떻게 견딜 수 있을지".
- 한겨레신문. 2005년 11월 9일자. "썩터엔 왜 안가요? ... 거긴 인권이 없어요".
- 한겨레21. 2005년 12월 6일자. "2005 종이상자의 겨울".
- 노숙인다시서기지원센터 홈페이지 www.homelesskr.org.
- 전국실직노숙자대책종교시민단체협의회 홈페이지 www.homeless.or.kr.

Ethno-graphic Research on the Bonding of Street Homeless : Making Alliance of Rough World

Kim, Jin-Mee
(Catholic University)
Seo, Jung-Hwa
(Catholic University)

This study is to explore how the bondage of street homeless is made and what it implies. In order to do so, this study does participation-observation for the life of the homeless on the street and drop-in-center according to the ethno-graphic research tradition. Starting from the August of 2005, during the period of six months, we did a field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s of facilities for the homeless in the major parts in Seoul and collected the interview data through the interview-in-depth with 8 homeless people.

Following the data-analysis procedures of Spradley(1979), we identified the main domains related to the factors for the bonding of street homeless. These domains show us how the homeless people who were left in the whole new world of homelessness just manage to tide over the crisis of identity and survival. The bondage of street homeless in the situation of street homelessness has been shown to have these following meanings: (1) the cultural significance as their second home, (2) the meaning of an alternative group to be admitted, (3) the maintenance of self-identity by way of distinction in the group. According to these, the self-identity of homeless is dual and, therefore, the meaning and interpretation of their relationship is also dual. This dualistic attitude comes from the process in which the homeless acquire the alliance-resource for the very survival and self-existence.

The results of this study confirm that the homeless suffer from the lack of true relationship as well as resources.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supporting policies and services for the street homeless should be achieved qualitatively and integrated under a long range plan.

Keyword : street homeless, street homelessness, social relationship, bonding, bondage, ethno-graphic

[접수일 2006. 3. 15. 게재확정일 2006. 5. 9]